

## ▶ 국내외 축산 · 사료 정보 ◀

### ■ 에탄올 산업, 침체국면

-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월 12일 지난해 여름까지만 해도 옥수수에서 에탄올을 만들어 내는 공장들이 미 중서부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지만 경기침체 속에 자동차 운행이 줄고 에탄올 수요가 줄면서 문을 닫는 공장들이 매주 등장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 미국 최대의 에탄올 생산업체 중 하나인 베라선에너지는 16개 공장 중 12개의 생산을 중단했고 생산시설 매각을 계획. 리뉴에너지와 캐스케이드 그레이인 프로덕트, 노스이스트 바이오퓨얼은 최근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 신재생에너지협회의 밥 딘 회장은 미국의 150개 에탄올 업체와 180개 공장 중에 10개 이상의 업체가 지난 3개월 동안 24개 공장을 닫았으며 이로 인해 연간 125억갤런의 에탄올 생산능력 중 20억 갤런 정도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 에탄올 산업이 휘청거리면서 옥수수 외에 목재나 작물 폐기물 등에서 에탄올을 생산하려는 차세대 공장 건설 계획 등도 지연되고 있다.
- 에탄올 산업의 이런 곤경은 지난해 7월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에 육박하면서 대체 연료로 에탄올이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됐던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급변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 불과 몇달 전만 해도 휘발유 판매 가격을 낮추기 위해 휘발유에 10%까지 혼합할 수 있는 에탄올을 최대한 구입하고 투자자들은 차세대 바이오연료에 투자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지난 여름 이후 국제유가의 급락 속에 휘발유 가격도 크게 떨어지면서 정유사들은 에탄올 구매를 최대한 줄이려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연합뉴스 2/13일자)

### ■ 中, "가뭄에도 식량안보 걱정없다"

- 중국 농업부는 지난 2월 12일 50년만의 최악의 가뭄에도 불구하고 식량 재고가 충분해 곡물 가격이 계속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부 웨이차오안(危朝安) 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중국에서 가뭄 피해가 난 밀 재배면적은 전체의 40%에 이르고 있지만 지난 5년간 풍작이 계속돼 식량 재고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 웨이 부부장은 이달 초순의 곡물 평균 가격은 1kg에 1.72위안(344원)으로 1월 하순에 비해 0.44% 올라 상승폭이 작년 동기에 비해 오히려 소폭이었다고 밝혔다. 밀과

- 옥수수 가격은 상승폭이 미미했고 쌀 값은 0.91% 상승했다.
- 웨이 부부장은 식량 재고는 충분하고 소비는 작년대비 1% 증가에 그칠 것이기 때문에 가격 안정세가 지속되고 따라서 식량안보에 이상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 그는 여름철 밀 수확량을 추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하고 정부가 농민들에게 '가뭄과의 전쟁'비용으로 867억위안(17조원)을 투입했기 때문에 농민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2/16일자)

- 알젠티(봄부터 계속된 심각한 강우부족으로 곡물생육 지연, '09.2월들어 강한 강우로 일부주에서는 재해발생)
- 옥수수 생산량 전년대비 38.7%감소, 대두 생산량 전년대비 5.3% 감소 전망

※ 알젠티의 주요곡물생산량  
(2007/2008, 2008/2009)

		2007/ 2008 (A)	2008/ 2009 (B)	B/A (%)
옥수수	생산량(천톤)	22,017	13,500	△38.7
대 두	생산량(천톤)	46,232	43,800	△5.3

## ■ 2008/2009 알젠티, 브라질 곡물생산량 대폭감소 전망

<브라질 국가식량공급공사(CONAB), 알젠티농목어업식량청(SAGPyA) 공표>

- 브라질(남부지역의 가뭄이 주요인) 옥수수의 식부면적은 전년대비 1.9%감소, 생산량 14.2%감소 전망
- 대두의 식부면적은 전년대비 0.8%증가, 생산량 4.7% 감소 전망

※ 브라질의 2008/2009  
주요곡물 식부면적 및 생산량

	식부면적 (천ha)	전년비 (%)	생산량 (천톤)	전년비 (%)
옥수수	14,491	△1.9	50,309	△14.2
대 두	21,475	0.8	57,215	△4.7

## ■ 국내 한 중소기업 베트남에서 곡물자원 확보

- 대체 에너지 개발기업 유엔아이센트럴홀딩스(대표 김유석)는 베트남에서 약 1만 2700ha(약 3850만평) 규모의 농지를 확보해 사료나 바이오에탄올의 원료로 쓸 수 있는 옥수수 대량 재배 사업을 시작한다고 지난 1월 7일 밝혔다.
- 유엔아이센트럴홀딩스 측은 우선 오는 3월 씨앗을 뿌려 7~9월이면 첫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베트남은 옥수수의 경우 연간 3모작이 가능 해 매년 약 38만t을 수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시세인 t당 300달러 수준에만 거래되던 향후 5년 내 매년 약 760억원의 순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한국경제 1/7일자)

## ■ 대만, 중국 사료용 옥수수 수입 개방안 1년간 재 연장

- 대만 국제무역국은 2008년 12월 26일 중국산 사료용 옥수수 수입 개방안을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1년간 재 연장하기로 공포하였다. 대만에서 중국산 사료용 옥수수는 중국 물품 수입 미개방 항목이지만, 작년 국제 원료의 물량 부족에 의한 물가 폭등으로 중국산 옥수수 잠정 개방안이 1년간 시행되었었다.
- 국제무역국은 최근 국제 원료의 가격이 하향 조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만 현재 수입가와 작년 평균 가격과 비교했을 시 여전히 고가 상태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관련 업체의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 원료 공급을 위해, 중국산 옥수수 수입을 개방을 1년간 재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 현재 중국산 옥수수가격이 미국산보다 다소 비싸기 때문에 단기간 내 이윤을 볼 수는 없으나, 금년에도 재고량을 포함한 전세계 국제 곡물가의 변동 변수가 클 것으로 보고, 국제 원료 가격이 재 상승 시 미국산 옥수수의 경쟁 상대로 가격적 독주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 즉, 현재 미국산 옥수수는 1톤당 수입가가 USD220불이고, 중국산은 USD250불에 수입되고 있으나, 운임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잇점이 있어 국제 옥수수 가격 상승시 가격적 우세함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타이베이 aT센터 1/6일자)

## ■ 베이징, 외지 가금류 반입 금지

-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로 사망자가 발생하자 베이징시 당국이 외부로부터 가금류 반입을 전격 금지하는 등 통제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 앞서 베이징에서는 AI 감염 의심환자로 분류됐던 농민공이 지난 1월 5일 오전 AI로 사망했으며 감염원인은 재래시장에서 산 오리고기를 먹은 뒤 발병했다고 밝혔다.
- 중국 당국은 비상조치를 강화하면서 AI가 인체를 통해 감염될 확률은 0%에 가깝다며 시민들을 안심시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으며 WHO도 중국 정부의 통보를 받고 방역 등 기술지원 준비에 착수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염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밝혀 사실상 사람간에는 전염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연합뉴스 1/8일자)

## ■ 브라질 · 아르헨티나 가뭄으로 곡물가 상승 조짐

- 50년 만에 닥친 최악의 가뭄으로 주요 곡물 생산국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등의 곡물 생산이 크게 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곡물 가격이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지난 1월 15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에서는 중서부 산타페와 동부 엔트레 리오스 주를 중심으로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 이 지역에선 현재 지난해 강우량이 예년의 40% 수준에 불과하면서 지난 1961년 이후 최악의 가뭄 사태로 곡물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산타페 주 농업생산자단체의 우고 이투라스페 회장은 "가뭄의 영향이 극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대두를 비롯한 곡물 재배와 생산이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국제 주요 대두 거래시장의 하나인 아르헨티나 동부 로사리오에서 거래된 대두 가격은 지난해 12월 초에 비해 30% 정도 상승했다.
- 이와 함께 지난 수개월간 하락세를 보여온 시카고 곡물시장의 대두 가격도 최근 들어 상승 조짐을 보이며, 지난 1월 15일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에서 3월물 대두는 전날 보다 23센트(2.37%) 오른 부셸당 9.945달러에 거래됐다.
- 지난 6개월 사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대두의 t당 가격도 372달러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로사리오 대두 거래시장의 로레나 단젤로 이코노미스트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계속되는 가뭄과 생산량 감소가 국제 대두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시아경제 1/16일자)

### ■ 에그플레이션 공포감(?)

- 에그플레이션 공포감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15일(현지시

간) AFP통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중서부 산타페와 동부 엔트레 리오스주를 중심으로 극심한 이상 가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 또한 이 지역들은 지난해 강우량이 예년의 40% 수준에 불과해 지난 1961년 이후 최악의 가뭄사태로 곡물 생산량은 크게 줄어 국제곡물 가격이 다시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아르헨티나는 밀가루 콩기름 세계 1위, 옥수수 2위, 밀은 4위의 주요 곡물 수출국이다. 전체 경작면적의 절반 이상이 대두 재배에 사용될 정도다.
- 업계 관계자는 "에그플레이션 공포감이 다시 재현될 조짐을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이두데이 1/16일자)

### ■ 호주산 개사료 먹은 애완견 잇단 중독사

- 중국에서 호주산 개 사료를 먹은 애완견들이 지난해 8월 이후 잇따라 중독사하는 사고가 발생해 검역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동방조보가 13일 보도했다.(1/13, 조인스닷컴)
- 위 보도와 관련 농식품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판매사는 호주회사이지만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아플라톡신이 중독사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1/15, 농식품부 문서)

- 한편 대만의 떠돌이 개 300여마리가 파키스탄에서 수입된 옥수수로 만든 사료를 먹고 폐죽음을 당해 대만당국이 지난 1월 5일 관련 제품을 폐기처분토록 명령하였으며 개 사료에서 채취한 샘플의 검사결과 심각한 간 손상을 초래하는 아플라톡신이 150ppb가 검출 되었다고 밝혔다.(매일경제 1/6일자)

### ■ 중국, 50만톤 옥수수 수출 쿼터 예상

-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옥수수 생산국인 중국이 국내 공급확보를 추구하면서 예년 수준의 10% 가량의 50만톤의 옥수수를 금년중 수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전에 오백만톤을 수출할것을 고려중이었던 중국은 가격을 조절하고 국내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보다 적은 양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 50만톤의 쿼터는 세계 옥수수 교역량의 1% 보다 적으며 미국이 아시아시장에서의 옥수수 판매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미국 농무성에 따르면 중국은 2006, 2007년에 5백만톤 이상을 수출하였으나,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정부가 국내 공급을 늘리기 위해 수출 쿼터발행을 중단한 이후에는 중국의 옥수수 수출은 예년에 비해 96%하락하여 1월과 10월 사이에 21만톤에 이르고 있다.(블럼버그통신 1/2일자)

### ■ 국제유가 40~70달러에서 움직일 듯

-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처럼 올해도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기 여파로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져들면서 원유 수요가 급감한 데다 올 수요 전망 역시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 세계은행은 지난 12월 초 발간한 '2009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원유 수요가 지난해 2.2% 줄어든 데 이어 올해에도 2%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 평균 유가는 지난해 평균보다 26%가량 떨어진 배럴당 74.5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은행들의 전망치는 이보다 훨씬 낮다. JP모건체이스와 도이체방크도 각각 43달러와 47.5달러로 전망했다.(한국경제 1/2일자)

### ■ 인도, 08/09년 대두박 수출량 5백만톤 이상 될 듯

- 08/09년 인도의 대두박 수출량은 5백만톤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수출량인 4백9십만톤을 초과하는 수치이다. 인도 대두가공업자협회의 한 대변인에 따르면, 08/09년 대두박 수출 목표는 5백5십만톤이며 적어도 5백만톤 이상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인도의 대두박 수출이 올해 10월에는 대략

9만2천톤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으나, 최근들어 대두박 가격의 급등으로 수출에 활기를 띄게 됐다. 2개월 전에는 FOB 가격으로 톤당 265~290불대였으나, 현재 300~310불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베트남, 일본 그리고 한국이 인도산 대두박의 주요 수입국이며, 특히 베트남이 올해 최대 수입국으로서 8십만톤 정도를 수입할 전망이다. 최근 들어 이란이 주요 수입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만5천톤을 구매하였고, 앞으로도 10만톤 정도 추가 구매할 계획이다.
- 세계 대두박 가격은 남미의 건조한 날씨에 따른 생산량 감소 우려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인도산 대두박 가격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해외 리포트 종합)

## ■ 미국, 세계 제일의 밀 수출국 자리 위협로워...

-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흑해지역에 위치한 나라들이 최근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 제일의 밀 수출국 타이틀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이 나라들은 최근 오스트레일리아와 아르헨티나를 제치고 세계 5대 밀 수출국의 하나로 급성장하고 하고 있다.
- 2008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밀농사에 아주 이상적인 기온이 계속되면서 작년의 63밀리언 톤보다 무려 28% 늘어난 기록적인 밀 생산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러시아 농무부가 발표했다. 이 지역의 밀

은 미국산 밀에 비해 대체적으로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에 민감한 나라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 미국의 2008년 밀수출은 27밀리언 톤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전체 수출액의 22%에 해당되는 수치라고 USDA는 밝혔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 십년 전 보다는 27% 줄어 든 것이다. 한편 예전 소련지역에 위치한 12개 국가들의 수출량은 세계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1998년의 3.4%에서 급상승한 수치이다.
- 러시아는 오스트레일리아와 아르헨티나 두 나라의 전체 수출량보다 더 많은 14밀리언 톤의 밀을 수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9밀리언 분량의 밀을 수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이처럼 흑해지역 나라들이 점차적으로 세계 밀 수출 강대국으로 자리잡아 가고는 있지만 예측할 수 없이 변화무쌍한 날씨 때문에 매년 생산량이나 수출량을 예상할 수 없는 게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AgriNews의 분석가 제임스 던스터빌이 말했다.

(LA aT 센터/WSJ.com 2008. 12/30일자)

## ■ 브라질, 옥수수 · 대두의 생산량 감소 전망

- 브라질은 최근에 몇 달간 있었던 기뻐움으로 인한 타격을 측정하며 올해 옥수수 그리고 대두 생산량 전망을 감소할 것으로 발표했다.

- 정부는 올해 작물 년도에 옥수수 예상량을 50.3백만톤으로 낮추고 있고 이것은 1월 8일 예상된 52.3백만톤과 전년 생산 58.7백만톤에서 낮아진 수량. 대두 예상은 지난달 57.8백만톤의 예상과 전년 수확된 60백만톤에서 57.2백만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큰 옥수수와 대두의 수출국가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최근 주요 작물생산지역에서 심각한 기상악화(건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지역에선 건조한 상태가 앞으로도 지속되면 이로 인한 타격은 이미 측정된 손실보다 훨씬 더 클지도 모른다고 발표했다.
- 앞으로 3개월 동안 남부 농업지역의 강수량은 기존강수량의 40퍼센트 이하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했다.
- 브라질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두 생산국이며 3번째로 큰 옥수수 생산국이다. (블럼버그 2/5일자)

### ■ 아르헨티나 곡창지대 20% 황무지로... 중국은 국가 비상사태

- 중국 호주 중남미 등을 강타한 최악의 가뭄으로 곡물 파동에 따른 식량난과 애그플레이션(농산물발 물가 상승)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란 복합 위기에 빠진 글로벌 경제에 '물(水) 부도'(water bankruptcy)의 공포까지 엄습하는

모습이다.

- 중국은 반세기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국가비상사태를 맞았다. 중국 최대 밀 생산지인 허난성을 비롯 허베이와 베이징 산시 안후이 등 12개 성과 시의 지난해 11월 이후 강수량은 평년의 20~50% 정도에 그치고 있다. 특히 허난성 일부 지역엔 지난해 11월 이후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있다. 수도 베이징 시민들도 1972년 이후 처음으로 최근 100일 넘게 비나 눈 구경을 하지 못했다. 급기야 중국 정부는 지난 2월 5일 사상 최초로 1급 가뭄경보를 발동했다. 당국 집계 따르면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면적은 1억5500만무(畝 · 1무는 666.66㎡)에 이른다. 또 429만명이 식수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207만마리의 가축들이 죽어가고 있다. 중국 최악의 가뭄으로 한국은 물론 동아시아 전체에 2002년 대황사에 버금가는 극심한 황사 피해도 우려된다.
- '세계의 곡창'으로 불리는 아르헨티나도 1961년 이래 최악의 가뭄으로 곡물 생산이 급감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밀가루와 콩 기름 세계 1위, 옥수수 세계 2위, 밀 세계 4위 수출국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체 곡물 재배면적의 15~20%가 가뭄 때문에 황무지로 변했다. 아르헨티나의 콩 생산은 지난해보다 20%가량 감소한 3700만t에 그칠 전망이다. 옥수수 수확은 45% 줄어 1200만t에 머물 것으로 보이며, 밀 수확은 반토막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단체들은 "가뭄으로 경작지가 파괴되고 소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이달 안에 대규모 시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멕시코에도 가뭄이 강타, 멕시코시티에 물을 공급하는 상류 댐이 16년 만에 최저 수위로 떨어졌다. 멕시코 정부는 지난 주말 사흘 동안 급수를 제한, 2000만명의 시민들이 급수차에 의지하고 있다.(한국경제 2/8일자)

## ■ 벌크선 시황, 2009년 들어 강한 상승세 시현

- 벌크선 종합운임지수(BDI)는 지난해 10월 28일 1000 포인트가 붕괴된 이후 12월 5일에는 663 포인트까지 하락했지만 2009년 새해 시작부터 상승하기 시작하기 시작해 지난 1월 27일에는 3개월만에 1000 포인트를 회복하더니 2월 6일에는 전일대비 무려 144 포인트나 상승한 1642 포인트를 기록, 1월 20일 이후 13일째 상승세를 이어갔고 상승폭도 점점 커져가고 있다.
-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일 일일 2316달러까지 떨어졌던 케이프사이즈 벌크선의 스팟 평균 용선료는 2월 5일 현재 2만 6495달러까지 상승했고 일일 1만 달러까지 하락했던 유럽-브라질-극동항로의 1년 용선료는 최근 3만 달러를 상회했다.
-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벌크시황의 이같은 상승세를 "그동안 재고량 소진과 금융시장 경색으로 철광석 수입을 규제했던 중국이 자국 경기부양과 쓰촨성 재해복구를 위해

철광석 수입을 재개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 최근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약 800조원의 자금을 투입키로 했으며 이 자금은 기반시설과 건설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경기부양시책의 일환으로 중국 정부는 최근 강제 수출기업에 대해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시설비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철강업체들은 그동안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조강생산에 나서면서 철광석 수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 특히 중국과 브라질 철광석 수출기업간에 오는 4월부터 적용되는 철광석 도입가격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케이프사이즈 벌크선의 수요가 2월 하순부터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시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 한편 최근의 시황상승과 관련해 일시적인 상승현상이라는 견해와 중국의 철광석 수입재개로 상승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뉘고 있으나 저점을 찍고 시장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시장 관계자 대부분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선주협회)

## ■ 美 곡물업자, "컨선 대신 다시 벌크선"

- 미국발 금융위기로 철광석, 곡물 등을 운반하는 건화물(벌크)선 운임지수가 대폭 떨어

진 가운데, 물류비 절감을 위해 벌크선 대신 컨테이너를 선택하던 곡물수출업자들이 다시 벌크선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 벌크선 운임지수(BDI)가 1만포인트에 달하던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컨테이너선을 이용해 곡물을 운송하는 경우가 잦았으나, BDI가 급락한 지난 연말 이후 이같은 움직임이 사라지고 있는 것. 한마디로 '벌크선으로의 회귀(回歸)가 시작된 셈이다.
- 업계관계자는 "주요 곡물수출국인 미국의 화주들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벌크선 대신 가격 경쟁력 있는 컨테이너선을 선택했던 것"이라며 "벌크 운임이 높았던 지난해 상반기까지만해도 컨테이너를 통한 곡물운송으로 미국발 아시아항 물동량이 계속 증가해왔으나, 연말 이후 급제동이 걸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를 통해 곡물을 운송하던 미국화주들이 다시 벌크 운송으로 눈길을 돌리면서, 최근 컨테이너를 통한 곡물운송이 전년 대비 절반 가량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EBN산업뉴스 1/23일자)

### ■ BDI, 3개월만에 1천포인트 선 회복

- 철광석, 곡물 등 건화물을 운반하는 벌크(건화물)선 운임지수가 3개월만에 다시 1천포인트선을 회복했다.
- 지난 1월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7일

BDI(Baltic Dry Index, 벌크선운임지수)는 전일대비 7포인트 증가하며 1천4포인트를 기록했다.(1/29현재 1,036포인트) BDI가 1천포인트대를 나타낸 것은 지난해 10월 27일 1천48포인트 이래 처음이다.

- 지난 2007년 상반기 1만 포인트를 웃돌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BDI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급락, 지난 12월에는 역사적 저점인 663포인트까지 떨어진 바 있다.
- 이후 700~800포인트선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던 BDI는 기축년 돌입과 함께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며 최근 업계 안팎으로 '반등 기대감'을 불러모으고 있다.
- 특히, 중국 철광석 수요가 최근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케이프사이즈급을 중심으로 한 반등이 기대되고 있다.
- 케이프사이즈 운임지수인 BCI는 지난 27일 2천35포인트를 기록, 지난해 10월 이후 약 3개월만에 2천포인트선을 회복했다.
- 케이프사이즈급 선박의 스팟(SPOT) 용선가 또한 1만7천927달러를 나타냈다. 지난해 이맘 때 수준인 8만달러선에는 턱없이 못미치지만, 한달 전 8천달러대보다 2배 가량 증가, 2만달러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EBN뉴스 1/28일자) ☒